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등록 : 정옥례 권사
2.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참여바랍니다.
3. 오늘 점심식사 후에는 '새가족 담당 위원회'와 '장례 담당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들은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4. 오늘 오후 2시부터 '임직자 & 향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동두천 '언덕위의 신흥교회' 담임인 김명득 목사님입니다. 이로 인해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5. 청년부 MT가 2월 9일(금)~10일(토)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진행됩니다.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우동정 : 이명호 집사님(조성경 집사)의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조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7.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유중열 집사님이며, 오후찬양예배 기도담당은 정진숙 권사님입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정진숙 권사	설연휴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햄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목장 (유숙정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	주사랑목장	에덴목장	갈렘목장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서교독	..... 교독문 9번(시편 15편).....	다같이
*경배찬송	..... 9장(통 53장).....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 302장 (통 408장).....	다같이
대표기도	.....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막 9:14-2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도자
말씀선포	..... '하나님께 집중하기'.....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	집례자
제정의 말씀	.....	집례자
성찬참여	.....	다같이
성찬후기도	.....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다같이
*결단송	..... 620장.....	다같이
*축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금  
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라

요 15장 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항존직 교육’으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16-21 '두려워 말라'(3)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66:1-20 '주의 인자하심'(6)-(10)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작심삼일 넘어서기’

간밤에 기습적으로 눈이 내렸다. 올 겨울에는 눈이 하도 많이 내려 첫 눈의 감흥도, 눈 치울 걱정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한다. 내일이면 벌써 입춘(立春)이다. 24절기의 처음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 입춘의 ‘立’에는 ‘곧’ ‘즉시’라는 뜻도 있어 이제 곧 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봄으로 들어서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추울까. 물론 음력설에다 정월 대보름이 남았으니 추울 만도 하다. 하지만 추위도 너무 춥다. 나름 새해를 맞아 규칙적인 운동이며, 책임기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로 분주한 삶을 꾸려보지만, 추위가 반겨주질 못한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게을러서 못하지 모든 게 다 핑계다.

그러다가 문득 아련한 옛일이 떠오른다. 고입을 치루고 나서 입학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있던 때라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에 도전해본 적이 있다. 그러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는 제1장 ‘집합과 명제’ 부분만 새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었다. 매주 그러기를 작심하고 다시금 도전해 보지만, 도돌이표에 사로잡힌 포로처럼 겨우내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기억. 비단 그때뿐이랴. 이후 삶에도 희망차게 시작을 열여졌히고 끝맺음을 하지 못했던 여러 순간은 내 안에서 작은 패배감으로 움텄다. 특히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을 들을 때면 차마 나 자신에게도 변명하지 못한 채 뜨끔했다. 끝을 보지 못할 바에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다.

현실로 돌아온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작심삼일로 매사가 그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어쨌든 끝을 보지 못한 것일수록 애착이 가기 마련이다. 결코 미련 때문만은 아니다. 설사 중도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도하면 해보기 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라고 했다. ‘해 아래에 새것이 없다.’는 말씀은 인생의 허무를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시금 시작해 보자. 삼 일이 안 되면 이를 씩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저질러 본 술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완성에 이를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